

# 도자부터 생활·장식미술까지... 조선 대표 명품을 만나다



박성천 기자  
추천하는 **책**

## 유홍준의 한국미술사상의 5·6

유홍준 지음

유홍준 명지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유명한 저자다. 그는 답사를 매개로 문화유산 전반을 심미적인 시각과 감성적인 문체로 그렸다.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가 최근 한국미술사 전반을 아우르는 통사를 완간했다. 지난 2010년 시작해 13년 만에 완간했으며 전 6권 총 25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 5권은 한국적 미(美)의 정수를 꼽히는 조선 도자이며, 6권은 조선공예 생활·장식미술이다. 그동안 한국미술사의 특정 시대 혹은 한 분야에 집중한 책은 많았다. 그러나 한 명의 저자가 한국미술 전반을 다룬 통사를 쓰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책을 완간한 소감을 그는 이렇게 말했다.



"회화사가 전공인 내가 한국미술사 전체의 통사를 쓴다는 것은 마치 피부과 의사가 의학개론을 쓰고, 민법학자가 법학개론을 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때문에 타 분야에 대한 많은 공부가 필요했고 상반된 학설들을 일일이 소개하기 위하여 많은 설명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로 인해 그는 타 분야에 대한 공부도 필요했다고 했다. 상반된 학설들을 밝히기 위해 많은 설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먼저 5권 '조선도자'에서 저자는 조선 왕조 도자기의 영광과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사실 조선 초에는 분청사기의 전성시대였다. 고려청자보다 귀족적인 이미지가 강했다면 분청사기는 질박한 아름다움이 특징이다. 분청사기는 전국에서 생산되었기에 중앙의 통제에 따라 제작된 후대의 백자들과는 달랐다.

조선은 세종 때부터 백자를 생산했다. 15세기 후반에는 사용원의 분원을 관영 사기공장으로 설치해 백자를 생산했다. 특히 조선은 화려하게 장식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순수한 흰빛을 발하는 백자를 사랑했다.

"조선시대 백자의 특징은 한마디로 '순백(純白)에 대한 숭상'으로 요약된다. 다른 나라 백자는 바탕만 백자이지 대부분 여러 색깔의 안료를 사용한 채색자기이다. 백자 위에 그림을 그리는 유상채(釉上彩)에 에나멜 안료와 금속 재료까지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조선 왕조의 백자는 순백자의 순결을 잃지 않으면서 전개되었다."

조선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청화백자를 생산할 만큼 도자강국이다. 그럼에도 화려한 문양구성이 특징인 명나라의 청화백자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여백을 살린 문양 구성으로 대표되는 아름다움을 장안할 만큼 독보적이었다.

이밖에 저자는 조선 후기 지방 가마에도 주목했으며 생활용기로 쓰인 도기, 용기항아리 등에도 주목했다. 특히 중국과 일본 도자사를 따로 해설한 부록은 세계사 관점에서 우리 도자기를 가능할 수 있게 한다. 6권 '조선 공예 생활·장식미

술'은 미술사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잡은 공예와 장식화, 민화와 같은 생활미술에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조선시대 공예를 생산의 측면이 아닌 사용의 측면에서 네 분야로 구분한다. 왕실공예, 규방공예, 선비공예, 민속공예가 그것.

왕실공예는 가장 수준 높은 기교와 재료가 동원됐기에 유물 수준이 높다. 어보, 어책, 교명 등은 역사적인 의미뿐 아니라 그 자체로 명품이다. 양반 계층 여성들이 사용한 규방공예는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미학을 보여주고, 단아한 아름다움을 발하는 선비공예는 별다른 장식 없이도 선비정신을 구현한다.

민속공예는 견고한 형태미가 특징으로 뒤주나 혼례용 나무 기러기인 목안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새롭게 만나는 생활, 장식미술은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식미술에서 찾을 수 있다. 그 가운데 궁중과 양반사회에서 쓰였던 장식화들은 정교하게 그려졌을 뿐 아니라 크기도 커서 감상화들과는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또한 조선 후기 등장한 민화는 특유의 매력 있어 민예학자들과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았다. 저자는 민화는 전통화법을 벗어난 자유로움에 그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5권 2만6000원·6권 3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백자철화근무늬병



'추칠흑칠삼상장'

## 이해인의 햇빛 일기

이해인 지음



수도자이며 베스트셀러 시인인 이해인 수녀는 그동안 주옥같은 작품으로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우는 시를 썼다. 그의 작품을 읽고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는 이들이 많다. 시가 주는 힘이며, 세상 사람과는 다른 종교인이 주는 평안의 힘이다.

이해인 수녀가 신작 시집을 펴냈다.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 이후 8년 만에 발간한 '이해인의 햇빛 일기'는 맑은 감성으로 감무리한 작품집이다.

시인은 "이 시집의 제목을 '햇빛 일기'라고 한 것은 햇빛이야말로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며 특히 아픈 이들에겐 햇빛 한줄기가 주는 기쁨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시집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 '내 몸의 사계절', 2부 '맨발로 잔디밭을', 3부 '좀 어때세요?', 4부 '춧볼 켜는 아침'으로, 각 장마다 따스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

특히 1부와 2부에는 투병 중에도 나날이 써낸 신작 시들이 담겨 있다. "처음으로 만난/ 햇빛의 고요/ 햇빛의 만남"이라는 '햇빛 향기' 속에서 시인은 매일 아침을 맞으며 "너그러운 양분"을 발견하는 것은 물론 이웃에게 "등근 사랑음/ 시작한다"고 고백한다.

올해 78세인 시인은 이제 노년의 삶을 살고 있다. '노년 일기'라는 작품에서는 "흔돈 속에 뒤죽박죽이 된 것 같은 / 나의 일상을 억지로라도 받아들이며 / 웃어보려 애 쓰지만 / 이게 쉽지 않아 우울해 있는데"라고 되뇌인다.

그럼에도 시인은 삶에 대한 성찰 외에도 아픈 이들을 위한 위로를 건네는데 초점을 둔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살아야겠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또 하루를 살았구나' 감탄의 기도를 바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길을 가기로 해요"라고 말한다.

〈열림원·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공정이란 무엇인가

벤 펜던 지음·박정은 역음



'공정성(fairness)' 개념은 포퓰리즘과 결합하기 좋다. 삶에 떠오르는 막연한 불쾌감을 불공정성으로 정의하면, 무엇이든 막연히 '공정'해야만 할 것 같기 때문. 형평성을 잃지 않고 균등한 사회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 있지 않나... 과연, '페어플레이 정신'이란 인류에 필수적이며 언제나 정의로운 절대선일까.

이 같은 의문을 날카롭게 제시하는 책이 출간됐다. 30년 넘게 영국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옥스퍼드 메일', '데일리 텔레그래프' 등 지면에 저널을 발표해 온 벤 펜던의 '공정이란 무엇인가'가 바로 그것.

"오늘날의 '포퓰리스트(populist)' 리더들은 자신이 정치인이 되었을 때, 유포피아를 가져오는 데 계속 실패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한다. 이 '민중의 적'은 장소와 시기에 따라 다양하다."

저자는 정치인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타인을 책망하는 방편으로 공정성 개념을 수단화한다고 말한다. 개인적 이익이나 당색으로 말미암아 공정함을 운운하는 이들이 사회에 많고, 시민들은 이들을 '민중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자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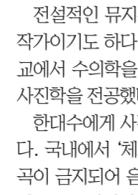
공정성의 반의어가 불공정이라는 착각은 우리를 막연한 공정성에 집착하게 만든다. 삶의 부조리한 부분이 세계의 균열 때문이라는 생각은 한편에서 편리하다.

저자는 이러한 편익주의적 발상에 반기를 들며 사회, 정치, 역사, 스포츠 등 분야에 대해 인문학적으로 중심을 잃지 않아 함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사회구조의 수행 추를 기계적으로 저울질하는 것만이 유의미한 것이 아니라, 균질화된 인간 내면 심리와 중심 잡힌 사고가 더 중요함을 강조한다.

〈아이리온·1만8000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삶이라는 고통

한대수 지음



전설적인 뮤지션, 한국 포크-락 음악의 대부 한대수는 사진작가이기도 하다. 할아버지의 권유로 미국 뉴햄프셔 주립대학교에서 수의학학을 공부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중퇴하고 이후 사진학을 전공했다.

한대수에게 사진은 떠나야 할 수 없는 인생 반려자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체제 전복적인 음악'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모든 곡이 금지되어 음악으로 한 푼도 벌 수 없었을 때 그를 먹여살려주는 돈벌이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거리의 사진작가 한대수의 필름 사진집 '삶이라는 고통'은 1960년대부터 2007년까지 40여 년 동안 필름 카메라로 찍은 작품 세계를 집대성한 개인과 시대의 기록이다. 2016년 뉴욕으로 건너간 한대수는 그동안 수십 개의 박스에 쌓아두었던 수십만 장의 네거티브와 슬라이드 필름을 정리하면서 사진집을 작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동안 공개한 적 없는 희귀 흑백·컬러 사진 100여 점을 추려 책에 담았다.

눈에 띄는 사진은 1960년대 말 뉴욕과 서울 풍경을 담은 흑백 사진들이다. 68혁명 시기의 자유분방한 공기와 활기,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도시 빈민의 실의와 절망이 뒤섞여 있는 뉴욕의 모습, 개발도상국이 되기 전 가난한 도시민들의 삶을 여실히 보여주는 서울의 모습은 동시대라는 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조적이다.

사진집에는 이와함께 뉴욕, 모스크바, 파리, 탕헤르, 바르셀로나, 스위스, 태국, 몽골, 베이징의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사진도 담았다.

한 작가는 "필름 이미지는 아웃라인이 매끄럽지 않고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것과는 차이가 크지만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그때 쏘아 부었던 피와 눈물이 느껴진다"며 "때로는 희미하고 때로는 포커스가 안 맞더라도 내 인생의 순간을 포착한 사진을 보여드리니 맥주 한잔 마시며 즐기라"고 소회를 밝혔다.

〈북하우스·3만3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קינגשא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3년 10월호

2023년 9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가을, 국악의 향연 속으로

# 國樂

— 변신하는 국악, 더 신명나다  
— 진도에 가면, 국악이 좋다!  
— 국악의 잠재력이 폭발하다

진도타워 세방낙조 웰빙섬길

집도 웰빙길 | 명랑해전의 현장 물들목, 진도타워 해넘이 감동, 세방·금치산 전망대 | 보석 같은 초도군도 '굿모닝진도' 토시오 전복장·관플레이크 | 카페 '하이진도' '하루에 세기' 명인이 키우는 건강쌀·축마차·숙차

202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도시를 바꾼 아트투어리즘 ① 프롤로그

아트투어리즘 국내외 성공 도시 관광객 부르는 매력 탐색

에향 초대석

많은 사람을 위한 책의 집' 윤영, 고티 연구자 전영애

"인간은, 지향(志向)이 있는 한 방향한다"

특별기획 - 新진남관광역지도 ⑤

미식관광의 메카로 떠오른 전남

특별기획 - '목포 어디까지 가봤니?' ⑤

104위 전국체육대회 스포츠와 문화예술 어우러지는 '문화 체전'

화제의 지역축제-2023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둘러보고 가을꽃도 만끽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살 순례기 '변두리와 언저리' ②

대인동, 버스터미널과 대인시장

오동진의 '시네마 역사' ②

'원폭의 아버지' 오펜하이머 폭탄의 시대 선사하다